

논의돼 왔는데 그 당시 이 문제는 British Nuclear Fuel사(BNFL)의 산화물 연료 재처리공장(T-HORP)을 SSEB/CEGB 양청에서 이용하기 위한 양측간의 계약조인식에서 최초로 제기된 것이다. SSEB/CEGB 양 전력청은 THORP 조업개시(1992년 예정)후 10년간의 재처리 용역을 16억 파운드(27억 달러)로 계약했다.

이 건설저장시설의 건설공사는 이 두 전력청의 공동투자로 4년간 시행될 것이며 최종적인 공사 착수 결정은 멀지 않아 단행될 영국 전력 공급업체의 민영화에 따라 생길 CEGB/SSEB의 후계회사에 의해 내려질 것이다.

전력회사들은 저장시설 건설현장으로 BNFL사의 Chapelcross 보다는 Heysham 현장을 선정했는데 그 이유는 Heysham 현장에는 영국의 총 7기의 AGR 발전소중 2기가 있고 이 2기가 비교적 많은 양의 사용후연료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Heysham은 또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 있는 다른 AGR 발전소의 사용후연료를 받을 수 있는 중심지점에 위치해 있다.

저장계획은 사용후연료관리면에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AGR의 사용후연료는 BNFL사 Sellafield 단지로 수송될 때까지 각 AGR 발전소내에 수중에 임시 저장되고 있으며 이곳에서도 재처리에 같은 방식으로 저장되고 있다. 이 건설저장시설은 나중에 Sellafield로 수송되기 전에 중간단계로 사용후연료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CEGB의 한 간부는 작년 초에 이 사용후연료의 저장을 AGR의 發電을 보호하기 위한 「保險」이라고 표현하고 이 사용후 연료 저장은 기존의 BNFL사의 재처리과정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한 반드시 실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중간저장시설은 처음에는 높이 46m, 길이 220m, 폭 160m의 건물 하나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4개의 저장시설이 수용되며 전체 사용후연료저장용량은 약 840톤이다. 이 용량은 두 전력청 소유 AGR에서 4년간 발생하는 사용후연

료 전량을 저장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각 모듈의 실제저장용량은 100년분이다.

저장용량을 늘리기 위해 저장고는 추가 건설될 것이며 사용후연료는 자연대류에 의해 냉각되는 밀봉된 강철재 용기내에서 불활성 아르곤 가스중에 저장된다.



Framatome社, TVA/臺灣電力으로 부터 作業用로봇受注

Framatome 사는 9월 중순 TVA사로 부터 자동 볼팅 로봇트 2대를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이 로봇트는 2개월내에 납품하게 되며 TVA의 Watts Bar 및 Sequoyah PWR 발전소의 냉각재 시스템의 노즐·댐 보수작업에 사용된다.

이외에 Framatome사는 대만전력으로 부터 Maanshan PWR 발전소에서 사용할 보수용 장비의 주문도 받았으나 이 주문에는 1988년 말까지 증기발생기 채널·헤드·노즐·댐 13개와 볼팅 로봇트 3대를 납품하는 것 외에 이 장비를 사용할 작업원에 대한 훈련도 포함돼 있다. Framatome사는 1980년부터 지금까지 프랑스 국내외에서 총 52대의 볼팅·로봇트를 판매했다.



Ontario州 通商使節團 中國訪問

Ontario주 에너지성 장관 Wong씨를 단장으로

로 하여 AECL사와 Ontario Hydro사의 마케팅 담당 중역들을 포함, 20명으로 구성된 캐나다 통상사절단이 최근 3주간 중국 전국을 여행하면서 세일즈 활동을 벌였는데 이번 방문목적은 중국과 캐나다 약국간에 중국의 발송전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는데 있었다.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이 사절단은 북경, 남경, 항주, 광주, 홍콩 등지에서 중국 당사자들과 회담을 가졌었다. 이외에도 Babcock & Wilcox사는 이미 북경 보일러 제작소와 발전설비의 설계제작을 위한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온타리오주 수상의 자문위원회도 이와 같은 합작관계를 캐나다 원자력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1984년 6월, 캐나다와 중국 양국의 원자력학회 사이에 기술이전을 위한 의정서가 교환된 후로 약국은 계속상담을 벌여왔다. Ontario Hydro사는 AECL을 통해 중국에 코발트-60를 공급하고 있지만 重水 국제시장에서는 중국과는 경쟁관계에 있다.



改良型原子爐 國民合意

소련의 원자력발전 관계기관은 아직도 Lithuania 공화국내 Ignalina 발전소에 제3의 RBMK를 추가건설하는데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아직 미완성 단계이지만 개선된 원자로 설계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원자력이용 국가위원회(GKAE)의 Protsenko 위원장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9월 21일의 기자회견

에서 모스크바 당국은 Lithuania 공화국이 원하지 않을 경우 원자로 건설에 대해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원자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와 공화국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후 비엔나에서 9월 23일 기자회견에서 Protsenko 씨는 9월초에 케이블화재사고를 겪었던 Ignalina-2호기' 현재 재가동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다. 또 그는 9월 19일에 가졌던 IAEA 총회에서의 연설에서 1986년의 체르노빌 참변으로 유명해진 RBMK 노형을 옹호했다. 이 사고 발생후 소련당국이 취한 종합대책에 힘입어 RBMK 원자로는 다른 어떠한 원자로와도 손색이 없는 안전한 원자로가 되었으며 따라서 이 원자로도 다른 원자로와 똑같이 존재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Ignalina 발전소는 최근 케이블 화재사고, 발전소 반대데모등 뉴스의 초점이 되어왔다. 이 발전소는 스웨덴과 핀란드 양국과의 국경선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소련의 원자력발전소이다. IAEA의 안전담당이사 Rosen씨가 9월에 일본을 방문하는 길에 이 발전소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Protsenko씨는 말했다.

Protsenko씨는 Ignalina-3호기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체르노빌 사고전에도 이 발전소 현장은 당초 계획대로 4기의 RBMK-1500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었다고 말하고 이는 이 현장의 냉각수 저수지가 6,000MW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이례적으로 더웠던 지난 여름에 이것이 증명되었다) Lithuania 공화국이 그렇게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RBMK 전문기관인 레닌그라드 설계연구소는 표준형인 쌍둥이 노형 대신에 단일 노형을 설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체르노빌 사고후에 이 설계연구소는 개량된 계장제어설비, 진단설비 및 격납설비를 포함시